

“21세기 한국어음운론의 과제”에 대한 토론문

이진호¹

서울대학교^{1*}

ljh1@snu.ac.kr^{1*}

21세기가 시작된 후 벌써 한 세기의 1/5이 지났습니다. 과연 21세기에 이루어진 한국어 음운론 연구도 20세기의 연구를 뛰어넘어 1/5만큼 더 성장했는지는 한국어 음운론을 계속 공부해 온 저 스스로도 자신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자들이 과거와 현재의 연구 성과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반추해 보는 것은 앞으로 더 나은 연구를 추구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배주채 선생님은 현대 한국어 음운론에서 큰 업적을 남기셨기에, 오늘의 발표 역시 다른 어떤 발표보다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선생님께서 21세기 들어서 중요한 연구의 흐름으로 대조 음운론을 거론하셨습니다. 아울러 남은 21세기에서도 이 방면으로의 연구가 중요하다는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요컨대 현대 한국어 음운론은 20세기를 거치며 완숙기에 접어들었으므로 이제 그 영역을 대조 음운론 중심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조 음운론(대조 음성론)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더 듣고 싶은 사항들이 몇 가지 생겼습니다.

우선, 21세기 들어 한국어 음운론 연구가 대조 음운론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는 솔직히 약간 의문이 듭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논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내국인 중에는 외국 유학을 다녀온 일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국내에서 한국어 음운론을 지속해 온 연구자들 중에는 대조 음운론을 다룬 경우가 별로 없는 듯합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해당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단순한 양적 결과물이 아닌 다른 측면을 고려할 때 21세기 초반의 한국어 음운론이 대조 음운론 중심이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더 있을 듯합니다. 여기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대조 음운론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관련하여 여쭙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대조 음운론 연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대조 대상이 되는 언어들의 음운론을 모두 깊게 이해하는 것이 유리할 듯합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여러 언어의 음운론을 두루 섭렵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연구자가 서로 다른 언어들과 한국어를 대조하고, 그 결과를 계속 축적하면서 대조 음운론 연구가 발전해 나가야 할 듯합니다. 문제는 아시다시피 한국어 음운론 연구자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도 다양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수준 높은 대조 연구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조 음운론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발표에서 선생님께서 주로 현대 한국어의 음운론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음운사를 고려하면 대조 음운론 이외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방향이 더 있을 듯합니다. 그중 하나는 음운 변화의 원리와 과정 등을 현대 한국어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음운 변화는 어쩔 수 없이 문헌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어 변화를 구어에서 직접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실제 언어 자료를 통한 음운 변화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이론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조 음운론 못지않게 규모가 큰 주제이자 연구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육진 방언을 통한 일부 논의가 없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듯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오늘 선생님의 발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주제나 연구 방향을 더 말씀해 주신다면, 앞으로 한국어 음운론 연구의 의무를 지고 있는 여러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대조 음운론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사소한 말씀을 한 가지만 덧붙태겠습니다. 한글 표기법의 제정이 20세기 초기 한국어 음운론의 값진 성과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소 과도한 평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대 표기법의 뼈대는 이미 주시경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 김두봉이나 최현배 등 국내 연구자들에 의한 음운론 연구가 이어지지만, 이러한 연구 성과가 한글 표기법 제정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런 점에서 20세기 초 한국어 음운론의 연구 성과를 표기법 제정과 직접 결부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나 하는 느낌입니다. 아울러 시기적으로 약간 뒤이기는 하지만 표기법 문제와 무관하게 순수 음운론 연구를 추구한 이송녕, 小倉進平, 河野六郎 등의 연구는 실제로 한국어 음운론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표기법을 중심으로 음운론의 연구 성과를 평가한다면 이들의 연구가 너무 쉽게 배제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